

싱가폴 해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전소*	학과	식품영양학과
파견국가	싱가폴	파견대학	PSB 아카데미 시티캠퍼스
파견기간	2016. 1. 6. ~ 1. 28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는 Tiong Bahru 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지하철 1정거장 또는 버스 4정거장을 지나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규모는 우리학교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덥다보니 강의실은 항상 에어컨을 틀고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	<p>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많은 영어대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필리핀에서의 어학연수가 훨씬 많은 영어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취업역량프로그램보다는 영어수업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ppt 강의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듣는 강의와 똑같았습니다. 강사선생님들이 많이 준비 해오시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지루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반수업이 아닌 순천향대생은 다 같이 수업을 듣고 했습니다.</p> <p>과제는 Final Presentation 으로 조별과제가 있었습니다. 3-4명으로 이루어져서 각자5분정도의 영어발표를 했습니다. 조별과제는 미흡했던 점이 많았습니다.</p>
Activity	<p>1. 싱가포르 유니버셜스튜디오 학교에서 티켓을 주어서 10명이 다같이 유니버셜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다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용은 기념품을 제외하고는 들지 않았습니다.</p> <p>2. URA centre 도시개발청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싱가포르의 현재,과거,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3. Janoschka singapore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레스 회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p>

	<p>4. 국립싱가폴 도서관</p> <p>싱가폴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넓고 신기한 것도 많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의 여름의 날씨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날씨입니다. 12-2시 사이에는 해가 너무 썬서 저절로 선글라스를 찾게 되는 날씨입니다. 밤에는 선선한 날씨고 항상 26-30도의 기온을 유지했었습니다. 3주동안 비가 안 온 날은 며칠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소나기처럼 내려서 항상 우비나 우산을 챙기고 다녀야 합니다.
안전	싱가폴에서 다니면서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안전 관련된 문제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V) 기타() 숙소는 4인1실이었습니다. 개인별 책상과 옷장 침대가 구비되어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세탁기등은 잘 구비되어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사먹거나 끓여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너무 멀리 있어서 계단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많은 사람들이 호커센터에 가는데 호커센터는 깨끗해 보이지 않고 입맛에도 맞지 않아서 학교안에 있는 식당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교통	숙소에서 851, 33등과 같은 버스를 타고 4정거장 후에 내리면 학교가 있어서 매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지하철도 1정거장이면 숙소와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가끔 걸어도 다녔는데 걸으면 20-3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교통에서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7,4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400	
교통비	\$50	이지링크카드는 유심할 때 줌
유심	\$50	
기념품	\$150	면세점 제외
기본물품, 관광	\$50	관광지티켓, 화장지등
합계	\$700	남은 달러는 면세점에서 사용

5. 출국 전 준비사항

싱가폴은 우기이기 때문에 우비나 우산을 꼭 들고 다녀야하고 운동화보다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샌들을 챙겨서 오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옷도 가져와야하고 실내는 춥기 때문에 얇은 긴팔 정도는 챙겨서 오는 것도 좋다.

또한, 숙소에는 옷걸이가 없기 때문에 옷걸이도 챙기는 것이 좋고 슬리퍼도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 방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여서 많이 더럽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은 신발을 신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티슈도 많이 가져가면 좋다. 싱가포르에서 파는 물티슈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와 다르게 많이 얇다. 휴지도 우리나라 휴지보다는 매우 얇을 편이었다. 물티슈나 휴지는 사는것도 좋지만 예민한 사람이라면 챙기는 것도 추천한다.

숙소에서 멀티탭은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챙겨가는 것도 추천한다.

또한,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챙겨가서 다 쓰고 오는 것이 좋다.

싱가폴 물가는 생각외로 비싸서 호커센터를 제외하고는 식당을 들어가면 부가세가 많이 붙는 것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물, 물티슈는 먹고 뜯는 순간 가격이 들어간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처럼 물, 물티슈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학교에서 필리핀을 갔다 온 후에 간 어학연수라서 설레는 마음도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갔었다.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싱가폴은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같은 장소여도 야경이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덩다가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마리나베이샌즈, 센토사섬, 유니버설스튜디오, 동물원, 멀라이언파크 등 많은 곳을 돌아보고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

아침8시30분부터 수업을해서 오후3시에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싱가포르 구경을 하다가 숙소로 돌아오면 씻고 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이 되었다. 3주동안 그렇게 생활하니깐 마지막에는 지루한 면도 있었다. 싱가폴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둘러볼 곳은 1-2주에 다 돌아봐서 마지막주에는 지루했었다.

버디들이 있었는데 버디들과 많이 못 지내고 어울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학교프로그램으로 싱가폴을 갔다와서 좋았던거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싱가폴 동물원</p>	<p>창이공항</p>
	
<p>수료식</p>	<p>유니버셜스튜디오</p>
	
<p>멀라이언파크</p>	<p>가든더베이</p>

